

# 공연장·예술단 연계 시도... 음악·웹툰 창작공간 확장

민속자료 이관 협의 진행중 도립미술관은 개관 10주년 5개 예술단 전용 극장 제시 영상진흥원 대대적 리모델링 CGI애니센터에 웹툰캠퍼스



서귀포시 동홍동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에 문을 연 제주웹툰캠퍼스에서 만화팝아트전이 열리고 있다.

35년된 국립박물관 자료 이관 문제는 올해도 제주 문화계를 달궜다. 문화기반시설은 대중음악, 웹툰 창작 공간 등 영역이 확장됐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나섰지만 제주에서 잇따르는 크고작은 영화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개 문예회관을 5개 국립예술단과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세졌다.

아우르며 제주 대표 국립박물관으로 기능해온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전시실은 존치한다고 했지만 내년엔 별이는 박물관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서귀포예당·서귀포예술단 협업 신선=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 자료는 2013년 정책결정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이관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 사항을 조율하면서 해를 넘기고 있다. 인문·자연 분야를

공공 공연장을 둔 문예회관, 제주 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3개 문예회관과 공연 분야 장르가 배치된 도립예술단의 협업은 일부에서 시도됐다. 서귀포예당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서귀포예술단과 공동 기획한 일이다. 국립예술단과 연계하면 공연장 프로그램 개발에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지난 8월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과 예술단 전문인력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공연장은 자체 예술단을 갖고 있어야 하고 예술단은 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는 전용 극장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7개 국립미술관의 대표 격인 제주도립미술관은 해외미술 특별전 등 10주년 기획전을 이어갔다. 미술사 연구, 교육, 학예 인력 확보 등 중장기 운영 계획이 요구된다. 지난 6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공공수장고까지 들어서면서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을 포함 그 일대 미술 관련 공공 문화공간에 대한 조직 진단과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아·산지천갤러리 개관 취지 변질=1996년 제주민속관광타운으로 준공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은 100억원대 사업비를 투입해

'새로 고집' 공사를 시작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예술극장 활용 방안과 더불어 제주에서 펼쳐지는 각종 영화제를 뒷받침할 전용 공간 마련은 과제다.

서귀포 지역에는 예술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설이 잇따랐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녹음실, 연습실, 개방형 공간을 갖춘 국비 투입 제주형 음악창작소를 유치해 서귀포예당 야외 부지에 짓기로 했다. 10월 말 동홍동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에 문을 연 제주웹툰캠퍼스는 제주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웹툰 창작 지원, 웹툰 작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가 제주문예제단에 운영을 맡긴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는 부침을 겪었다. 별도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구색은 맞췄지만 예술공간 이아의 중점 사업이던 시각예술 레지던시는 반쪽이 되었고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수남 기증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산지천갤러리는 공간 활성화 이유 '사진 전문 갤러리'란 색깔을 지워냈다. 전선희기자

## 제주 김윤숙 시인 시조시학상 수상

시조 '베릿내' 수상작 선정 시적 구도·메시지 등 호평

제주 김윤숙 시인(사진)이 시조전문지 '시조시학'이 수여하는 제18회 시조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윤숙 시인은 제주의 자연과 역

사를 배경으로 거기에 배어있는 제주도민의 삶의 역정을 섬세한 이미지와 사유를 통해 그려왔다. 이번 시조시학상 수상작은 '베릿내'.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이 한라산 남서쪽에서 발원해 천제연폭포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베릿내의 어원을 잘 살려 천상과 지상이 서로 조응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시적 구도가 빼어나고 인생의 깊은 의미와 묘미에 다가서는 시적 메시지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김 시인은 '시조시학' 겨울호에 실린 수상 소감에서 "수상은 적지 않

은 시간, 나의 시조를 되돌아보게 했다"며 "반성과 함께 더 치열하게 써 나가겠다. 흘러 지나쳐 버린 소중한 것들의 빈틈을 찾아내어 다져가려한다"고 밝혔다.

2000년 '열린 시학'으로 등단한 시인은 앞서 시조시학 젊은 시인상, 한국시조시인협회 신인상을 받았다. 시집 '가시꽃밭 바다', '장미 연못', '잠빛살나무 근처'를 냈다. 전선희기자

## 10주년 도립미술관 환상 축제장으로



'프렌치 모던' 전 작품을 활용한 포토존.

해외미술 특별전 연계 콘서트·영화제·포토존

10주년을 떠나보내는 제주도립미술관이 연말 축제장으로 바뀌었다. 해외미술 특별전 '프렌치 모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과 연계해 지난 24일부터 '아듀 2019-프렌치 모던과 함께 하는 환상 축제 위

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29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재즈 콘서트 '벨라 샹송', 영화제 '프렌치 시네마', 포토존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미술관은 이달 31일까지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28일 오후 4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마련되는 재즈 콘서트는 재즈를 기반으로 프렌치 팝을 들려주

는 뮤지션 '시나 퀴엣'을 초청해 이루어진다. '프렌치 시네마'는 28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3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만날 수 있다. '까미유 클로델', '모딜리아니', '미드나잇 인 파리' 등 예술가와 명화에 얽힌 영화를 상영작으로 골랐다. 포토존은 '프렌치 모던'전에 걸린 작품을 모티브로 20세기 프랑스 정원 모양으로 꾸몄다.

도립미술관 홈페이지(jmoa.jeu.go.kr) 참고. 문의 064)710-4272.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詩(시)로 읽는 4:3 (40)

### 무명천 할머니 - 월령리 진아영

허영선

한 여자가 울담 아래 쪼그려 있네 손바닥 선인장처럼 앉아 있네 희디 흰 무명천 턱을 싸맨 채

모든 말은 부호처럼 날아가 비명횡사하고 모든 꿈은 먼 바다로 가 꽃히고 어둠이 깊을수록 통증을 깊어지네 홀로 헛것들과 싸우며 새벽을 기다리던 그래 본 적 없는 나는 그 깊은 고통을 진정 알 길 없네 그녀 믿는 곳마다 헛튼는 말들을 할 수 있다고 바다 새가 꾸벅대고 있네 지금 대명천치 홀출 자물쇠 벗기는 배롱한 세상 한 세상 왔다지만 공공 자물쇠 채운 문전에서 한 여자가 슬픈 눈 비린 저녁물에 얼굴 묻네 오늘도 희디흰 무명천 받치고 울담 아래 앉아 있네 한 여자가

울음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울음이 되는 그녀, 꼭꼭 막힌 목젖의 음운 나는 알 수 없네 가슴빠로 후독이는 그녀의 울음 야의 부지에 짓기로 했다. 10월 말 동홍동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에 문을 연 제주웹툰캠퍼스는 제주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웹툰 창작 지원, 웹툰 작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가 제주문예제단에 운영을 맡긴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는 부침을 겪었다. 별도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구색은 맞췄지만 예술공간 이아의 중점 사업이던 시각예술 레지던시는 반쪽이 되었고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수남 기증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산지천갤러리는 공간 활성화 이유 '사진 전문 갤러리'란 색깔을 지워냈다. 전선희기자

고(故) 진아영(秦雅英) 할머니(1914-2004)는 4:3사건의 생존 희생자였다. 1914년 태어나 한경면 판포리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1949년 1월 12일 신원 불상의 토벌대가 발사한 총에 맞았다. 이때 그녀의 나이 36세. 그 후 얼굴에 무명천을 두르고 다니다 해서 '무명천 할머니'라 불렸다.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림 주둔 2연대와 한림지서 경찰들에 의한 토벌이 이뤄졌다. 1949년 1월 12일 판포리에 군경토벌대가 들이닥쳤다. 할머니는 총격으로 턱을 맞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아래턱을 완전히 잃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언니와 사촌들이 살던 월령리로 이주했다.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툇을 캐다 팔고 이웃들의 농사를 도우며 약값을 벌고 하루하루를 영영했다. 제대로 씹을 수 없었다. 위장병과 영양실조로 평생 고통 받았다. 결혼도 못 하고, 자식도 갖지 못한 할머니는 성이 시들 요양원에서 2004년 9월 8일, 고령스러운 삶을 마감했다. (김관후 작가·컬리스트)

### 전국한시백일장 한시집

제주도문화원연합회(회장 신상범)와 사단법인 영주읍사(이사장 송인주)가 마련한 전국한시지상백일장 한시집이 묶였다. 이번 백일장은 '굴림추색'을 시제로 500여 명이 응모했다. 장원 최해대(울산), 차상 이태호(밀양) 배연우(서울), 차하 서동형(충주) 이응춘(대구) 권양식(평택)씨가 뽑혔다. 제주 돌과바람문화회(회장 양영길)가 여덟 번째 작품집 '지는 것들은 흔적을 남긴다'를 펴냈다. 이번 작품집은 특집으로 강순자의 '넋 할마님' 등 제주신화 시와 제주어 시를 묶었다. 박민순 윤보석 등 40~70대 연령층의 회원 23명이 참여한 시선도 풍성하다. 소설·희곡 분야 회원 작품도 실렸다.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